

호남지역사 유교이데올로기 체계적 연구위해 ‘한자리’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학술대회… 논문·유형 분석 발표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최근 ‘유교이데올로기, 시대를 읽는 창’이라는 주제로 지역혁신관에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는 변주승 소장의 개회사와 이호인 총장의 축사로 시작했으며, 총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는 호남권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팀의 ‘국역 노봉집’ 완역 발간을 기념해 ‘노봉 민정중의 정치활동과 현실인식’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2부는 한국근현대유학연구단이 ‘간재 전우의 연구현황과 사회관계 분석’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노봉 민정중의 정치활동과 현실인식’을 주제로 한 1부에서는 총 4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전주대 이주형 연구원이 ‘민정중의 응지상소를 통해 본 효종 초기 현안’, 황교은 연구원이 ‘숙종조 노봉 민정중의 정치적 역할’, 전형윤 연구원이 ‘노봉 민정중의 애민의식과 정치적 반영’, 채현경 연구원이 ‘민정중의 연행기를 통해 본 대청인식’을 발표했다.

2부에서는 ‘간재 전우의 연구현황과 사회관계 분석’을 주제로 총 3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군산대 박학래 교수가 ‘간

재 및 간재학과 연구현황 및 과제’, 전주대 홍성덕 교수가 ‘간재 전우 사회관계망 분석 시론’, 전주대 장숙필 교수가 ‘간재의 발신 간찰을 통해 본 간재와 문인들의 사상문답 유형 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유학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반영은 물론 유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해 한국학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호인 총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호남 지역사와 유교이데올로기라는 연구가 더욱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유교이데올로기, 시대를 읽는 창' 학술대회 개최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가 지난 13일 '유교이데올로기, 시대를 읽는 창'이라는 주제로 지역혁신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변주승 소장의 개회사와 이호인 총장의 축사로 시작했으며, 총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는 호남권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팀의 '국역 노봉집' 완역 발간을 기념해 '노봉 민정중의 정치활동과 현실인식'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2부는 한국근현대유학연구단이 '간재 전우의 연구현황과 사회관계 분석'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노봉 민정중의 정치활동과 현실인식'을 주제로 한 1부에서는 총 4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전주대 이주형 연구원이 '민정중의 응지상소를 통해 본 효종 초기 현안', 황교은 연구원이 '숙종 조 노봉 민정중의 정치적 역할', 전형운 연구원이 '노봉 민정중의 애민의식과 정치적 반영', 채현경 연구원이 '민정중의 연행기를 통해 본 대청인식'을 발표했다.

2부에서는 '간재 전우의 연구현황과 사회관계 분석'을 주제로 총 3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군산대 박학래 교수가 '간재 및 간재학파 연구현황 및 과제', 전주대 홍성덕 교수가 '간재 전우 사회관계망 분석 시론', 전주대 장숙필 교수가 '간재의 발신 간찰을 통해 본 간재와 문인들의 사상문답 유형 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유학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반영은 물론 유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해 한국학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호인 총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호남 지역사와 유교이데올로기라는 연구가 더욱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